

장일범의 '극장 없이는 못살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여성 단원

금년에도 세계 최고 실력의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11월 19일과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한다. 빈필은 실력과 화사한 사운드도 유명하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단체인 것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대표적인 것이 1842년 창단부터 1997년까지 150년이 넘게 단원들이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이다.

그런데 1997년 빈필이 미국투어를 가게 되면서 여성 단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오스트리아 정부가 재정을 끊겠다고 압력을 넣자 빈필은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여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빈필의 첫 단원이 된 여성은 이미 20년 간 빈필에서 연주를 했지만 프로그래밍에 이름조차 써지지 않았던 하피스트 안나 릴케스였다.

1997년부터 빈필의 여성 단원 오디션이 허락되었지만 빈필은 차일피일 여성 단원을 뽑지 않고 탐탁시키고 있었다. 첫 여성 단원으로 정식 채용된 연주자는 27세의 비올라 주자 우어줄라 플라잉어였다. 빈필은 내친 김에 악장직에도 여성을 뽑게 된다. 주인공은 불가리아 출신 알베나 다나일로바. 그는 2008년 빈국립오페라 극장의 악장 자리에 합격한 후 3년 간의 수습기간 동안 연주 의뢰를 소화하고 심사를 최종 통과해 드디어 빈필의 첫 여성 악장에 오르게 됐고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빈필의 여성 단원수는 점점 늘어나 총 145명 중 24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 단원들을 모두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빈필 단원들은 교향악단 공연 뿐만 아니라 빈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페라에 참여하는 단원들도 많아서이다.

이제 빈필 측은 "우리는 성별에 관계없이 최고 실력의 음악가들을 뽑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세계 오케스트라의 톱인 베를린필은 빈필보다 훨씬 일찍 여성 단원을 뽑는 문제로 국제적인 이슈가 됐다. 1982년 상임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에 의해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가 첫 여성 단원으로 지목되자 기존 단원들은 오케스트라 경험이 부족하고 목관 단원들과 잘 섞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격렬히 반대했다. 결국 단원 투표에 의해 마이어는 수석 단원으로 뽑히는 것이 좌절되었다.

카라얀은 강력하게 자비네 마이어를 원했고 마이어를 뽑지 않을 경우 베를린필 단원들이 짜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녹음 작업 지휘를 보이콧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하지만 결국 여성 단원을 뽑고 싶어하지 않는 단원들에 의해 자비네 마이어는 1년 간의 수습 계약만 하게 되었고 마이어는 그 길로 베를린필을 그만두고 최고의 솔리스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자비네 마이어는 카라얀의 후임으로 베를린필을 지휘하다가 사임한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이끄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 수석으로 참여해 뛰어난 기량을 전세계 인들에게 들려준 바 있다. 당시 베를린필 단원들의 편협한 마음은 자비네 마이어라는 불세출의 대어 연주자

를 놓치는 결과를 빚었던 것이다.

미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1942년에 창단한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1966년에 최초의 여성 상임 단원들이 입단하게 된다. 더블베이스 주자인 오린 오브라이언이다. 31세의 나이에 뉴욕필에 입단한 오브라이언은 2021년 은퇴할 때까지 무려 55년 동안 뉴욕 필에서 활동했으며 이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오케스트라의 유일한 여자 (The Only Girl in the Orchestra)'로 제작되어 2025년 오스카상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을 수상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서양의 유명 교향악단들보다 빨리 여성 단원들을 받아들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했던 민간 오케스트라 고려교향악단의 경우 여성단원을 모집했다는 공고가 있으며 이 오케스트라가 1950년에 창단한 서울시향의 전신이다. 창단 초기부터 여성 단원들이 활동해왔으나 당시 기록 부족으로 첫 여성 단원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서울시향은 2005년 세종문화회관 전속단체에서 벗어나 재단법인으로 독립했는데 이때 새롭게 오디션을 통해 단원들을 뽑았고 대거 여성 단원들이 채용되어 현재 단원중 남성 31명, 여성 59명으로 여성 단원의 수가 거의 두배 정도 더 많다. KBS교향악단이나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로 여자에 진학하는 여성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에 기인하고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다. <음악평론가>

의료칼럼



김재봉 광주신세계안과 대표원장

노안으로 오인하기 쉬운 백내장

이 번재 보이는 '빛 번짐'이나 강한 빛에 대한 '심한 눈부심'은 야외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며 흐려진 시야는 얼굴 인식, 요리 등 일상적인 활동마저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 노안으로 간과하지 말고 즉시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안과에서는 백내장 진단을 위해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비롯해 시력 검사, 안압 검사, 동공 확대 검사 등 종합적인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수정체의 혼탁 정도와 시력 저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게 된다.

현재까지 백내장을 완치할 수 있는 약물은 없다.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만이 근본적 치료법이다. 최근 수술은 초음파 유효술을 이용해 수정체를 미세하게 분쇄·흡입한 뒤 환자 맞춤형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삽입되는 인공수정체의 종류와 선택은 수술 결과와 환자 만족도를 좌우한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특정 거리(주로 원거리)에 초점을 맞춰 시력을 교정하지만 근거리 작업에는 돋보기가 필요하다. 다초점·연속초점 인공수정체는 근거리·중간거리·원거리를 모두 선명하게 볼 수 있어 안경의 존도를 줄여준다.

최근에는 빛 번짐과 달무리 현상을 개선하고 대비감을 높인 프리미엄 렌즈가 개발되며 환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오디세이' 렌즈는 원거리뿐 아니라 근거리·중간거리 시력까지 동시에 확보하면서 빛 번짐을 최소화해 야간 시력을 개선한 최신 프리미엄 다초점 렌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잦은 현대인에게 적합해 만족도가 높다.

백내장 수술은 환자의 눈 상태, 생활 습관, 연령, 직업, 기존 안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인공수정체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수술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첨단 장비의 활용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카탈리스(CATALYS) 레이저는 펄드 초 레이저를 이용해 수정체 낭 절개, 수정체 파쇄 등을 자동화하고 정밀하게 시행함으로써 기존 수술보다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이는 합병증 위험을 줄이고 환자의 회복 속도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다.

백내장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방치하면 시력 저하가 심화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조기 검진과 함께 환자의 눈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인공수정체 선택, 그리고 최신 레이저 장비를 통한 정밀한 수술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이처럼 최첨단 의료 기술의 발전은 백내장 환자들에게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선명한 시야와 편안한 일상을 선사하며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증상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조기에 전문의 진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인공수정체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수술 방법을 상담하여 다시 밝고 선명한 세상을 만끽하길 바란다.

또한 50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본인의 눈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는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수술 후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킨다. 또한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고혈압 등 전신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백내장 진행이 빠를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고



정경미 이태석재단 광주전남지부장

스웨덴에서 만난 리더십과 아이들

성경의 글귀처럼 어려운 학생과 시절 인연이 되어 시의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태석재단은 경쟁 일본도로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 리더십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서울과 지역에서 3년째 리더십 스쿨을 열었고 180여명의 학생들을 배출했다. 작년 상반기 지역에서는 최초로 광주 리더십 스쿨까지 열게 되어 17명의 광주·전남 학생들이 뜻깊은 교육을 받았다. 이어 남수단 봉사활동과 최근 스웨덴 글로벌 리더십 스쿨에 참여한 학생 3명을 배출했다.

재단은 필요한 곳이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고 남수단과 연결된 다양한 후원 사업,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 지원, 글로벌 리더십 스쿨 등의 실적을 쌓았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UN NGO로 지정되었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회복과 신뢰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스웨덴에서 글로벌 리더십 스쿨을 열었다. 사회민주당 올레 토렐 의원의 인연으로 타협과 협상의 정치로 스웨덴을 복지사회로 이끈 최장기 총리 타게 엘란데르가 퇴직 후 살았던 봄베르스빅(Bommersvik) 사회민주당 정치연수원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호수와 초목 정원의 넓고 높은 품에서 쉽고 사색을 경험하며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배움으로 얻었다. 품격 있는 국회의사당과 청정한 대자연 속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강연과 토론은 한국 학생들에게 우물 안 개구리 시야를 넓혀주고, 권위 없이 진심으로 경청하는 정치인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크라이나 난민으로 스웨덴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 5명이 참여해 팀을 이루었다. 강연 후 임팩트랩 토론을 활발히 진행했다. 그 결과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며 우정과 사랑 실천을 도모하는 국제 교류의 장이 되었다.

15세부터 청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회민주당 청년조직 SSU 대표단을 만나 다양한 활동과 교육 사례를 듣는 역동적 자리도 마련되었다. SSU 출신 최연소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이자이다 의원은 방학에 청소년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피부과 외담는 법안을 발의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진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연자 중 단연 인기를 끈 이는 34세 아만다 린드블라드 시장이었다. 솔직담백한 토크로 나 다음과 진심소통의 힘을 보여주었다. 덴마크 자유학교 모호스 교장의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이 활기를 찾고 좋은 수업모형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스웨덴에서 본 풍경과 음식,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면 겸이불루화이불치(儉而不奢 華而不侈)라는 말이 생각난다. 겸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아름다움이 자연과 사람 속에서 느껴졌다.

돌이켜보면 재단과 함께한 3년여는 30여년 행복한 교육을 찾아 나선 길에 보물을 발견한 시간이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공정과 정의라는 사회적 회두에 밀어붙이는 참교육 가치의 씨앗을 뿌리는 재단의 일원으로 변화와 혁신 속에서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아갈 힘을 얻는다.

社說

국정과제 확정된 지역 현안사업 이젠 실현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가 국무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통합 정치·혁신경제·균형성장·기본사회·국외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아래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지역 입장에서 미래 먹거리산업이 포함된 혁신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담은 균형 성장에 눈길이 간다.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광주가 인공지능(AI)을, 전남이 재생에너지를 내세웠는데 모두 포함됐다. AI 국가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광주는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와도 맞아 AI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기회를 맞았다. 전남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과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전략에 최적인 재생에너지 매카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개헌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광주정신'의 전파와 5·18 외곡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전남은 30년 숙원인 국립대 설립으로 필수요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됐지만 2030년 고교를 최대한 앞당겨야 할 과제도 안개 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해온 내용이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현안 반영에 노력한 결과 만족할 만한 소득을 얻었다. 이제부터는 현안이 실제로 추진돼 사·도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도 정권 초기 발표한 국정과제가 유야무야 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과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추진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한데 뜻을 모아야 한다.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에선 지방이 기회를 얻게됐지만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대통령의 성향으로 불매 능력에 따라 지역별 성과 차이가 클 것이다.

'웃돈 요구' 광주 시외택시, 표준요금 만들어야

광주에서 시외를 운행하는 일부 택시들이 '웃돈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사실상 확인됐다. 광주일보 기자들이 광주승정역 택시기사들의 현금 및 과다요금 요구에 대한 개신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취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승정역에서 장성 상무대로 가려는 군인이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기사들이 주행거리보다 50% 비싼 요금을 요구했고 택시 4대는 현금결제를 안할 경우 태워줄 수 없다며 승차거부를 했다는 민원이었다. 현장 취재를 해보니 일부 기사들이 '광주택시 시외요금표'라는 것을 내밀며 두 배에 가까운 웃돈을 요구했는데 기자가 앱을 이용해 카카오택시로 승정역에서 장성 상무대까지 이용해보니 기사들 요금액의 절반 가량인 2만 8450원 이 나왔다.

'광주택시 시외요금표'는 10여년 전 개입택시 기사들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광주시는 2019년 개정된

택시 운임 규정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으로 시외 운행시 주행요금(미터기)의 35%를 할증료로 부과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어떤 표준 운임표도 만들지 않았다. 상무대를 찾는 외지인들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바가지 요금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해서라도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바가지 요금은 택시업계에도 좋지 않다. 갈수록 카카오택시에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택시들은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시장을 더 빼앗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자존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광주시도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외요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구간별 표준 요금표를 만들어 업계에 제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상응하는 처벌로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면에서 흐르던 'Rain 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는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다. 폴 뉴먼과 출연한 또 다른 영화 '스팅'의 주제곡인 스킷 제플린의 '엔터테이너(The Entertainer)' 역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곡이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가 클래식으로는 드물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도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영향이 컸다. 광활한 아프리카 대자연의 풍광을 담은 영화에서 그가 연인 메릴 스피트의 모습에서 청년

로버트 레드퍼드를 연상했다. 영화배우이자 감독으로, 독립영화인을 지원했던 선댄스영화제 창립자이자 환경운동가로 이름을 알린 로버트 레드퍼드(1936~2025)가 세상을 떠났다. 로버트 레드퍼드는 그 어떤 배우보다 '음악'으로 기억되는 연기자일 것이다. 그가 출연했던 영화에 등장했던 음악은 제목은 몰라도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만큼 친숙하다.

평생의 친구였던 폴 뉴먼과 호흡을 맞췄던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 여자 친구 캐서린 로스를 자전거에 태우고 달리는 장

면에서 흐르던 'Rain 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는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다. 폴 뉴먼과 출연한 또 다른 영화 '스팅'의 주제곡인 스킷 제플린의 '엔터테이너(The Entertainer)' 역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곡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떠난 그를 그리워하며 영화 속 멜로디에 귀 기울일 듯하다. '흐르는 강물처럼'의 주제곡 'A River Runs Through It'를 듣고 있자니 플라잉 낚시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떠오르며 왠지 마음까지 편안해진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